



4월16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벌어지는 2017시즌 스테이어 시리즈의 첫 무대 '제16회 헤럴드경제배' 제9경주의 강력한 우승후보들. '클린업조이'(왼쪽)가 2016년 12월 18일 벌어진 그랑프리(G Ⅰ)에서 함완식 기수와 함께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샴로커'가 2017년 1월21일 챔피언시리즈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클린업조이 추입력 vs 샴로커 스피드

스테이어 시리즈 첫 번째-16일 제9경주

클린업조이, 2016년 그랑프리 우승 경험
샴로커, 그랑프리 누적승점 압도적인 1위

올해 스테이어(Stayer) 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인 '제16회 헤럴드경제배'가 4월16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제9경주(혼OPEN, 2000m, 총상금 2억5000만원)로 펼쳐진다. 서울 스테이어 시리즈 경주는 1800m, 2000m 이상의 장거리 적성마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탄생했다. '헤럴드경제배', 'YTN배', '부산광역시장배'로 구성됐다. 서울경주마는 '헤럴드경제배'와 'YTN배'를 통해 장거리 대표마로 선발되며 '부산광역시장배'를 통해 부산경주마와의 승부를 펼친다. 이번 경주의 강력한 우승후보는 '클린업조이'(외1, R123, 6세)와 '샴로커'(외1, R102, 4세)다.

'클린업조이'는 2016년 그랑프리(GI) 우승에 빛나는 경주마다. 매서운 추입 능력을 자랑한다. KRA컵 Classic 경마대회 우승을 통해 국내 최강 경주마임을 이미 입증했다. 최근 3연승의 상승세다. 이번 경주는 별정B형으로 부담중량도 크지 않다. 별정B는 레이팅 구간별로 부담중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레이팅 77~80이 마지막 구간이다. 별정중량은 57kg이다.

또 다른 우승후보 '샴로커'는 스피드와 힘을 고루 겸비했다. 선입과 추입 작전구사가 자유롭다. 1등급 승급 이후 출전한 4번의 경주에서 모두 순위권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2연승의 상승세다. 다만 최근 경주에서는 부담중량의 이점이 있었기에 이번에 진짜 능력을 검증할 필요는 있다. 현재 2017년 그랑프리 출전 누적승점은 '샴로커'가 44점으로 1위, '클린업조이'는 22점으로 '구만석'과 공동3위다.

이들에게 맞서는 복병마는 '천적'과 '빛의 정상'이다. '천적'(외1, R102, 6세)은 선행과 추입 작전이 모두 가능한 말이다. 최근 다소 기복을 보이지만 현재 등급에서는 언제든지 자력 입상 이상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빛의정상'(외1, R107, 6세)은 막판 탄력 발휘에 강점이 있다. 2016년 퀸즈투어 시리즈 우승마다. 기대치는 높지만 최근 성적은 좋지 못했다. 이번 경주에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접수 5월4일까지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부문
만 17세 이상 가능…필기시험 5월27일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3개 부문으로 4월14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6번째를 맞는 올해는 응시연령을 만 17세로 낮추고 실기시험 과목도 일부 조정한다. 올해는 3급 시험만 치러지는데 부문에 따라 평가기준은 다르다. 11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말조련사는 말을 조련하며 승마시설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다. 장제사는 말발굽을 깎고 편자를 제작함으로써 말의 발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는다. 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검증받는다.

지금까지 5차례 시행된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은 해마다 500명의 지원자들이 응시했지만, 합격자는 300명에 못 미칠 만큼 까다롭다. 필기와 실기로 나눠 진행되며, 실기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응시 가능하다.

필기시험 접수는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다.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필기시험 날짜는 5월27일. 마학, 보건 관리, 상식 및 법규, 장제이론, 재활승마이론 등 과목에 따라 다르다. 과목별로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8월21일부터 10월28일까지다. 합격기준은 필기시험과 같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1월이며,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3만원, 실기시험 7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호스피아 홈페이지 참고.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

200만원만 있으면 '마주'될 수 있어요

〈馬主〉

특별조합마주 경주마 지분분양 방식
경주마 1마리당 20개 이상 구좌 분할
개인·법인마주는 올해부터 상시 모집

한국마사회가 4월12일부터 마주(馬主)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마주를 상시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안정적으로 마주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모집 기간에 맞춰 급히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에서다. 연중 신청자를 모집하지만 분기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마주를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교차등록도 허용된다. 장기적으로 통합마주 도입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렛츠런파크 부경 마주로 등록된 사람도 일정조건만 충족한다면 서울 마주로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전과 달리 조합마주는 모집하지 않는다. 대신 지난해 '경주마 지분분양'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은 특별조합마주를 확대 모집할 방침이다. 경주마 지분분양은 1마리의 경주마에 대한 권리를 여러 개의 지분으로 분할해 조합원 개개인이 구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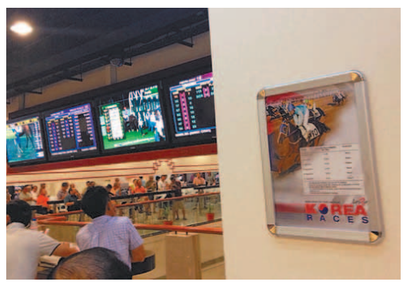
올해 렛츠런파크 서울의 마주 모집 규모는 70명 내외다. 개인·법인이 35명, 교차등록 30명, 특별조합 5명 내외다. 개인·법인마주는 4월12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교차등록마주는 4월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별조합마주는 4월20일부터 5월4일까지 분양 대상마를 신청 받는다.

특별조합마주의 가장 큰 특징은 '경주마 구좌제'라 불리는 방식에 있다. 경주마 1마리당 20개 이상의 구좌를 만들어 개인 또는 단체에 분양한다. '조합마주'와 달리 사전에 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없다. 불특정 다수가 동일한 경주마에 개별구좌를 신청한 뒤 사후에 조합을 구성하면 된다.

한국마사회 소유 2세마의 분양가액은 4000만원 정도. 20개 이상의 구좌로 분할하면 구좌 한 개당 상한금액은 200만원이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자격만 갖추면 200만원으로 마주가 될 수 있다. 대신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구좌도 최대 3개로 제한해 소수의 과점 문제를 사전에 막았다.

대신 모집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일반적인 마주모집이 공고·접수·심사·등록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특별조합마주'는 몇 가지 절차가 추가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마사회는 "마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반대중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 모색 중이다. 특별조합마주 역시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일반대중의 인지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국민 다수가 마주를 꿈꿀 수 있는 시대를 열 계획이다"고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경마.

호주·말레이와 한국경주 중계수출 연장계약

한국마사회가 호주, 말레이시아와 한국경주 수출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마사회는 2014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호주, 말레이시아, 홍콩, 마카오 등 세계 경마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주 실황을 위성생중계 방식으로 수출해왔다. 3년간 지속적인 수출확대 노력을 펼친 결과, 2016년 5개 나라에 1060개 경주를 수출하며 457억원의 현지 마권매출을 달성했다. 그동안 사행산업이라 치부되던 경마는 이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색 한류 수출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에 마사회가 계약을 연장키로 한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2016년 3월부터 경주를 수출한 나라다. 이를 통해 지난해 호주에는 141개 경주를, 말레이시아에는 218개 경주를 수출했다. 1년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지에서 한국경마의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인정받아 올해 3월 양국과 연장 계약서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연장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된다. 마사회는 이번 장기계약을 통해 수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국에서의 한국경마 인지도를 크게 높일 방침이다. 마사회는 "올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3개국과 연중 정기수출을 시행하고 신규 수출국가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올해 총 530억의 현지 마권매출 달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종건 기자

재능기부 봉사활동 '렛츠런 엔젤스 데이' 개최

한국마사회가 4월19일 전 임직원, 유관단체 등 총 12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제1차 렛츠런 엔젤스 데이(Angels Day)'를 펼친다.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실천과 함께 말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하는 현장 경영의 일환이다. 전국 6곳의 민간 승마장과 말 생산농가, 승마힐링센터 3곳, 렛츠런 CCC 인근 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문하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이양호 마사회장과 임직원은 경기도 화성시 궁평승마클럽을 찾는다. 승마장 마필 건강상태 점검, 장제사 돕기, 마방방역 등 마장관리, 마분수거 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체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은 서울·원당·부산 직영 승마힐링센터를 방문해 재활승마 강습 사이드 워커 봉사활동, 강습생 및 보호자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부서 1복지 자매결연시설 25곳과 렛츠런 CCC 31개소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금과 필요물품을 전달해 지원한다.

김종건 기자

toto 스포츠토토

구미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공격력'내세워 챔프 노린다

국가대표 출신 유영아·두다 영입
골 결정력 보완 득점력 향상 기대

'공격력 대폭 강화한 구미스포츠토토, 화끈한 공격축구로 챔프전 간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운영하는 구미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이 오프시즌 동안 대폭적 전력강화로 희망찬 새 시즌을 다짐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손종석 감독이 강조한 부분은 공격력. 스포츠토토는 지난 시즌 미흡했던 골 결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대표 유영아, 브라질대표 출신 두다를 영입했다. 손 감독은 크게 강화된 공격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챔피언에 도전한다는 야심이다.

공격수 두다는 브라질에서도 20세 이하(U-20)를 비롯한 각급 국가대표를 지낸 실력파다. 공중볼 경합에 강하고, 순간적 움직임이 좋다는 평가다. 성격도 매우 활발해 국내선수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는 두다는 "올 시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격적인 축구로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목표로 내세운 구미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선수들이 2017시즌 개막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구미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인천현대제철에서 활약하며 3년 연속 우승을 경험한 베테랑 국가대표 유영아의 합류도 스포츠토토에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유영아의 가장 큰 장점은 노련미에서 오는 탁월한 득점력이다. 스포츠토토 코칭스태프는 유영아를 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비장의 카드로 손꼽고 있다.

손 감독은 "지난해 미흡했던 골 결정력 강화와 함께 우리 팀의 장점인 전방압박과 수비 또한 집중적으로 훈련했다"며 "최대한 부상자를 줄여 반드시 챔프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토토는 14일 오후 7시 인천 남동경기장에서 현대제철과 시즌 첫 경기를 치른 뒤 21일 안방인 구미종합운동장에서 화천KSPO와 홈 개막전을 펼친다.

'롯데 4~5점·삼성 2~3점' 예상 1순위

■ 야구스페셜 9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14일 펼쳐지는 2017시즌 한국프로야구(KBO) 세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9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51.01%는 KIA-넥센(1경기)전에서 홈팀 KIA의 승리를 점쳤다. 원정팀 넥센 승리 예상은 35.36%, 같은 점수대 예상은 13.64%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에선 KIA 6~7점-넥센 2~3점 예상(6.16%)이 1순위를 차지했다.

롯데-삼성(2경기)전에선 홈팀 롯데 승리 예상(49.43%)이 원정팀 삼성 승리 예상(36.06%)과 같은 점수대 예상(14.51%)을 압도했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롯데 4~5점-삼성 2~3점 예상(6.47%)이 가장 높았다. NC-두산(3경기)전에선 원정팀 두산 승리 예상(43.89%)이 홈팀 NC 승리 예상(39.12%)과 같은 점수대 예상(16.97%)을 앞질렀다. 최종 점수대에선 NC 2~3점-두산 4~5점 예상(6.30%)이 최다였다.

야구토토 스페셜 9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홈-원정	KIA vs 넥센		롯데 vs 삼성		NC vs 두산	
경기일시	4.14(금) 18시30분		4.14(금) 18시30분		4.14(금) 18시30분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1	(6~7)-(2~3)	6.16%	(4~5)-(2~3)	6.47%	(2~3)-(4~5)	6.30%
2	(4~5)-(2~3)	5.64%	(6~7)-(2~3)	6.38%	(4~5)-(2~3)	6.07%
3	(6~7)-(4~5)	4.93%	(8~9)-(2~3)	5.10%	(4~5)-(6~7)	4.38%
홈팀 승	51.01%		49.43%		39.12%	
같은점수대	13.63%		14.51%		16.97%	
홈팀 패	35.36%		36.06%		43.89%	

* 게임방식 : 3경기 6개팀(또는2경기 4개팀) 최종 스코어 맞히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7. 4. 14(금) 18시 20분

이번 야구토토 스페셜 9회차는 14일 오후 6시 20분 발매 마감된다.